

청소년-부모 타인정서인식역량의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예측변인 검증

김하연* · 류호성** · 김소영***

I 알기 쉬운 개요

다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정서를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역량은 가정 내 상호작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자녀의 타인정서인식역량은 부모의 타인정서인식역량과 유사하게 발달하지만, 자녀 및 부모의 특성,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과 부모의 타인정서인식역량을 바탕으로 집단을 분류하고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은 (1) 부모-자녀 모두 타인정서인식역량이 서투른 집단, (2) 부모-자녀 모두 능숙한 집단, (3) 자녀의 타인정서인식역량이 부모보다 민감한 집단, (4) 자녀의 타인정서인식역량이 부모보다 둔감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긍정적 양육태도는 타인정서인식역량 향상에 기여했지만, 부정적 양육태도는 저하를 유발할 수 있었다. 남학생일수록 민감집단 보다는 둔감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컸다. 평일 수면시간이 길수록 정서인식역량이 낮은 부모의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지만, 주말 수면시간은 길수록 정서인식역량 향상에 기여했다.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서투른 집단에 속하지 않게 되었으나, 부모와의 대화 시간은 길수록 서투른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제1저자, kahnoey@naver.com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제2저자, a24801624@gmail.com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soyoungkim@jnu.ac.kr

투 고 일 / 2024. 12. 9.

심 사 일 / 2025. 2. 4.

심사완료일 / 2025. 2. 17.

I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타인정서인식역량의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각 프로파일을 예측하는 변인은 무엇인지 검증하는 것이다. 타인정서인식역량은 세대 간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청소년의 응답과 부모의 응답을 모두 활용하여 하위 집단을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 초등학교 4학년 패널 4차 자료의 2260명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사회정서발달의 핵심적인 시기에 놓인 중학교 1학년이었다. 분석 결과, 타인정서인식역량은 4개 프로파일로 분류되었으며, 각 프로파일은 청소년과 부모 모두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정서인식서투른 집단, 청소년과 부모 모두 타인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정서인식능숙 집단, 청소년의 타인정서인식역량이 부모보다 높은 자녀인식민감 집단, 그리고 청소년의 타인정서인식역량이 부모보다 낮은 자녀인식둔감 집단이었다. 프로파일 분류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검증한 결과, 청소년의 성별, 평일 수면시간, 주말 수면시간,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 부모와 보내는 시간,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수면시간과 부모와의 대화시간에 의해 청소년의 타인정서인식역량은 부모의 낮은 타인정서인식역량을 닮아갈 수 있지만, 성별에 의해 부모와 다른 발달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었다. 주말 수면시간에 의해 청소년의 타인정서인식역량은 부모보다 낮아지지 않고, 부모를 닮거나 더 향상될 수 있었다.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모와 보내는 시간에 의해 청소년의 타인정서인식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로 인해 청소년은 부모의 낮은 타인정서인식역량을 닮거나 저하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청소년 자녀의 타인정서인식역량을 다각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타인정서인식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청소년과 부모, 타인정서인식역량, 감정가(valence), 잠재프로파일분석

I. 서 론

타인의 정서를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능력은 조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상대의 표정에 드러난 정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알려주는 사회적 정보로 기능하기에 (Van Kleef, De Dreu & Manstead, 2010), 긍정, 중립, 부정의 세 가지 감정가(valence) 중 어떠한 감정가를 지각하였는지에 따라 인식자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부모가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영아는 깊은 절벽이 보이더라도 부모에게 다가가는 경향이 있다(Gibson & Walk, 1960). 그러나 분노 표정을 처리하는 데 편향이 있을 경우 상대의 의도를 왜곡하고, 심리사회적 부적응이 발생할 수 있다(Gibb, Schofield & Coles, 2009; Pollak & Sinha, 2002). 따라서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사회에 원만히 적응하기 위해서는 타인정서인식 역량을 함양하여야 한다.

타인정서인식역량은 대체로 부모에게서 청소년 자녀로 세대 간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부모가 타인의 정서를 능숙하게 파악하면 자녀도 정서인식을 잘할 가능성이 크다(허영주, 2023; Castro, Halberstadt, Lozada & Craig, 2015). 사회정서역량이 높은 부모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류성진, 2017). 구체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녀의 관점을 수용하며 높은 공감을 표현하면, 이를 토대로 자녀가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조절 능력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은, 남은영, 2011).

이처럼 타인정서인식역량의 발달은 가정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영역이지만, 청소년의 타고난 기질이나 가정환경 이외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개인차가 생길 수 있다. 김형석과 김재철(2022)에 따르면 자녀의 사회정서역량의 60% 정도는 부모로부터 그대로 전이되었지만, 40%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타인정서인식역량은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토대로 발달하기에(Masten et al., 2008), 이러한 발달 과정에 자녀의 개인적 특성, 부모의 개인적 특성, 그들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자녀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별과 수면시간이, 부모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와 부모의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부모와의 대화시간과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다운, 박정윤, 2024; 김형석, 김재철, 2022; 양재원, 박나래, 정경미, 2011; Gibb et al., 2009; Killgore, Balkin, Yarnell & Capaldi, 2017; Meroni, Piazzalunga & Pronzato, 2022; Van Der Helm, Gujar & Walker, 2010; Young & Widom, 2014).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청소년이 부모의 특성을 닮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종류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청소년과 부모의 타인정서인식역량은 서로 이질적인 하위 집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선 연구들에서 다소 주목받지 못하였고, 사회정서역량을 살펴본 김형석과 김재철(2022)의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에 의존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답이 존재하는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감정가(valence) 별로 타인정서인식역량을 채점한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타인정서인식역량이 부모와 유사하게 발달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청소년과 부모의 타인정서인식역량에 따라 서로 이질적인 하위 집단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프로파일 분류를 예측하는 변인이 무엇인지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청소년의 타인정서인식역량이 가족체계 내 상호작용과 관계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과 가정 차원에서 청소년의 타인정서인식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청소년과 부모의 타인정서인식역량은 몇 개의 하위 집단으로 분류되며, 각 집단별 특징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타인정서인식역량에 따른 하위 집단 분류를 예측하는 변인에는 무엇이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타인정서인식역량

정서인식역량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Baron-Cohen, Wheelwright, Spong, Scahill & Lawson, 2001). 타인의 얼굴 표정에 드러난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은 조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데, 표정 속의 정서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알려주는 사회적 정보(Van Kleef et al., 2010)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서는 긍정, 중립, 부정의 세 가지 감정가(valence)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중 어떠한 감정가를 지각하였는지에 따라 인식자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부모가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자녀는 깊은 절벽이 보이더라도 부모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Gibson & Walk, 1960). 그러나 분노 표정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상대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심리사회적 부적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Gibb et al., 2009; Pollak & Sinha, 2002). 또한, 또래의 표정을 부정확하게 인식하여 그들에게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경우(양재원 외, 2011), 우울과 불안, 비행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한현아, 도현심, 2008). 즉, 타인정서인식역량은 개인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성공적인 대인관계의 형성과 원만한 사회 적응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타인정서인식역량은 부모에게서 자녀로 세대 간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부모가 타인의 정서를 능숙하게 파악하면 자녀도 정서인식을 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허영주, 2023; Castro et al., 2015). 정서인식역량은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적 경험을 토대로 발달하기에(Masten et al., 2008) 사회정서역량이 높은 부모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성진, 2017). 구체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녀의 관점을 수용하며 높은 공감을 표현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자녀도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정서조절 능력이 높을 수 있다(이승은, 남은영, 2011). 특히 사회정서발달에 있어 핵심적인 시기에 놓인 청소년이 가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타인정서인식역량은 5-9세까지 크게 발달하고 13세 이후 다시 발달하는데(이수미 외, 2021), 사춘기를 앞둔 13세 무렵의 청소년이 가정 내에서 풍부한 의사소통을 경험한다면 정서인식능력 또한 잘 발달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타인의 표정에서 미묘한 정서를 파악하는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 예측변인

청소년과 부모의 타인정서인식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부모의 개인적 특성, 그들 간의 의사소통 측면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관계로 인하여 청소년과 부모의 타인정서인식역량이 서로 닮은 가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형태를 보이는 가정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에서는 성별과 수면시간이 정서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자이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한 청소년은 타인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정서인식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강다운, 박정윤, 2024; 양재원 외, 2011). 그들에게는 공감, 친사회적 행동 같은 요소가 또래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Rose & Rudolph, 2006) 상대의 표정에서 정서를 민감하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면시간의 경우 평일과 주말의 수면이 타인정서인식역량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023년에 약 48%의 청소년이 가정학습, 학원 등의 이유로 수면부족을 호소한 상황이며(유민상 외, 2023), 13-18세의 경우 평일(7시간 54분)의 수면시간이 주말(9시간 3분)보다 더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4). 수면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저하되어 표정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정서 해석에 있어 오류가 증가할 수 있다(Killgore et al., 2017; Van Der Helm et al., 2010). 특히 긍정적인 표정과 중립적인 표정의 식별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Maccari et al., 2014).

부모의 개인적 특성에서는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타인정서인식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녀에게 따뜻한 모습으로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양육태도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사회정서발달에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형석, 김재철, 2022). 반면, 김형석과 김재철(2022)에 따르면 부모의 거부와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정서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를 받은 아동은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Gibb et al., 2009; Young & Widom, 2014). 그들은 두려움을 나타내는 얼굴에 대해서는 더 빨리 반응하지만(Masten et al., 2008) 기쁨, 놀람과 같은 비적대적인 정서를 분노와 같은 적대적인 정서로 지각할 수 있다(김은경, 이정숙, 2009).

부모의 일방향적인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자녀와 부모 간 의사소통도 정서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모와 식사 및 여가활동을 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자녀의 타인정서인식역량은 높아질 수 있다(강다운, 박정윤, 2024; Meroni et al., 2022). Meroni et al.(2022)은 독서, 악기 연주 등을 하며 부모와 보내는 시간과 집안일 같은 활동은 자녀가 가족 구성원을 관찰하며 공감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 그러한 활동은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정서적 어려움은 완화시키며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도 자녀의 타인정서인식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김형석, 김재철, 2022). 그러나 대화시간이 늘어나면 오히려 자녀가 정서인식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상반된 결과도 존재하였다(강다운, 박정윤, 2024). 이에 대해 강다운과 박정윤(2024)은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반드시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청소년은 친구를 비롯한 대인관계 고민을 호소하지만 부모는 주로 학업 및 진로에 초점을 두고 개입하므로(소수연, 안지영, 양대회, 김경민, 2014),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의 감소가 정서인식능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았다.

Ⅲ.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8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 4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4차 년도 조사는 2021년에 이루어졌으며 이때 연구대상은 14살의 중학교 1학년이었다($M=14.00$, $SD=.10$). 총 2260명의 청소년이 타인정서인식역량과 예측변인의 측정에 응답하였으며, 이 중 남학생은 1138명, 여학생은 1122명이었다. 패널 자료에서 연구대상의 보호자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자매, 친인척을 포함하고 있지만, 타인정서인식역량의 측정에 응답한 보호자(2255명) 중 다수가 어머니(2046명)와 아버지(182명)이었다. 그 외는 소수였기 때문에(27명) 본 연구에서는 보호자가 아닌 부모로 지칭하였다.

2. 연구도구

1) 타인정서인식역량

타인정서인식역량은 인지적 공감으로도 일컬어지고, 측정도구로는 눈으로 마음 읽기 검사(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RMET)가 사용되고 있다. RMET(Baron-Cohen et al., 2001)는 눈에 담긴 미묘한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를 4개의 보기 중에서 고르도록 하는 검사로, 얼굴 전체 자극을 사용한 과제보다 난이도가 높다. 한국노동패널 제20차 부가조사에서도 이 척도가 사용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스페셜 모듈(전현정, 김나영, 이용해, 2022)을 본 연구에서 활용하여 타인정서인식역량을 측정하였다. 표 1에 28문항 중 2문항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원척도는 절대적인 정답이 존재하지만, 표정에 드러난 감정은 모호하며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Boehner, DePaula, Dourish & Sengers, 2007) 특정 표정에 절대적인 답이 있다고 가정하여 채점하는 방식은 얼굴표정이 가지는 모호함과 중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석윤주, 양재원, 2018). 이에 한국노동패널과 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해당 문항에 가장 많은 사람이 응답한 값(최빈값)을 정답으로 처리하고 있으며(장인성, 이지은, 신선옥, 정현상, 권익성, 2022), 본 연구에서도 최빈값을 정답으로 처리하였다. 최빈값을 정답으로 처리함으로써 청소년과 부모의 정답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었다. 17번 문항의 표정에

대해 청소년의 정답은 ‘우호적인’, 부모의 정답은 ‘주저하는’ 이었고, 24번 문항에서 청소년은 ‘진지한’, 부모는 ‘혼란스러운’을 정답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답 비율(맞힌 문항의 개수/전체 문항의 개수)을 계산하고, 감정가(긍정, 중립, 부정)에 따라 타인정서인식역량 변수를 생성하였다. 이 과정은 RMET 정서 분류 사례들을 검토한 Palmer와 동료들(2024)의 연구, Watson과 Clark(1994)의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목록 확장형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본 연구의 척도는 한국어로 변안되었음을 고려하여 박홍석과 이정미(2016)의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척도 타당화 연구도 참고하였다. 예컨대, ‘단호한(decisive)’은 영어권에서 대개 긍정정서로 분류되지만 한국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기에(박홍석, 이정미, 2016), 본 연구에서는 중립정서로 포함시켰다. 이를 토대로 각 문항의 정답을 감정가에 따라 분류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해당 문항에서 정답을 맞히면 ‘1’로, 오답은 ‘0’으로 코딩하였다. 타인정서인식역량은 정답률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게 되며, 1에 가까울수록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1
타인정서인식역량 측정 문항 예시

17번 문항				24번 문항			
1	화난	우호적인	2	1	진지한	부끄러운	2
							
3	불친절한	주저하는	4	3	혼란스러운	놀란	4

표 2
감정가에 따른 타인정서인식역량 분류

	청소년	부모	
↑	긍정정서	우호적인, 흥미 있는, 희망하는, 확신에 찬, 행복한	우호적인, 흥미 있는, 희망하는, 확신에 찬, 행복한
↕	중립정서	단호한, 요구하는, 회상하는, 무언가 생각하는, 진지한	단호한, 요구하는, 회상하는, 무언가 생각하는, 진지한, 주저하는
↓	부정정서	증오하는, 슬픈, 속상한, 걱정하는, 의심스러운, 수심에 잠긴, 기쁘지 않은, 불안한	증오하는, 슬픈, 속상한, 걱정하는, 의심스러운, 수심에 잠긴, 기쁘지 않은, 불안한, 혼란스러운

2) 예측변인

타인정서인식역량의 프로파일 분류를 예측하는 청소년변인으로 성별, 평일 수면시간, 주말 수면시간을, 부모변인으로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를, 의사소통변인으로 부모와 보내는 시간과 부모와의 대화시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성별은 여성을 0으로, 남성을 1로 코딩하였다. 수면시간과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배상률 외, 2013)의 문항 일부를 추출하여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적인 취침시간에서 기상시간을 뺀 값을 계산하여 평일과 주말의 수면시간 변수를 각각 생성하였으며, 값이 클수록 수면시간이 길다.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안함, 7점: 4시간 이상)로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여 측정되었다. 평일(5일)과 주말(2일)의 일수를 고려하여 하루 평균 대화시간 변수를 생성하였고, 값이 클수록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많음을 의미한다.

부모와 보내는 시간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의 기존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수면을 제외하고 식사, 학습, 여가, 대화 등을 포함하여 부모님과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함께 보내는지 묻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을 시 단위로 환산하고 평일과 주말의 일수를 고려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값이 클수록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많음을 의미한다.

양육태도는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양육태도 척도(김태명, 이은주, 2017)로 측정되었다. 이는 4개 문항씩을 포함하는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고, 4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의 하위요인을 평균 내어 긍정적 양육태도 변수를 생성하였다. 값이 클수록 양육태도가 긍정적임을 뜻한다. 그리고 거부, 강요, 비일관성의 하위요인을 평균 내어 부정적 양육태도를 생성하였고, 값이 클수록 양육태도가 부정적임을 뜻한다. 긍정적 및 부정적 양육태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91, .87이었다.

3. 자료분석

분석에 활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확인한 후, 청소년과 부모의 타인정서인식역량 하위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는 응답 패턴이 유사한 사람들을 하위 집단으로 분류함으로써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는 사람 중심적 접근이다(Collins & Lanza, 2010). 타인정서인식역량은 청소년과 부모 간에 상관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과 부모의 긍정정서 인식 간, 청소년과 부모의 중립정서 인식 간, 청소년과 부모의 부정정서 인식 간에 오차 공분산을 가정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기술통계는 SPSS 27.0을, 연구모형 분석은 Mplus 8을 사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에서는 프로파일의 개수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최적의 프로파일 수를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해 통계적 적합도와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AIC(Akaike, 1974), BIC(Schwarz, 1978)의 정보지수를 확인하였고, 이들의 값이 작을수록 모형 적합도가 좋다(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 LRT)으로는 LMR LRT(Lo, Mendell & Rubin, 2001) 및 Bootstrap LRT(BLRT; Peel & McLachlan, 2000)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파일 수가 k-1개인 모형과 k개인 모형을 비교하는데, p 값이 유의하면 k개인 모형을, 유의하지 않으면 더 간명한 모형인 k-1개인 모형을 선택한다. 또한,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엔트로피(Entropy)도 고려하였다. 이는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분류 비율과 해석 가능성(Collins & Lanza, 2010)을 고려하였다. 이후에는 영향요인을 포함하여 통합된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때 프로파일 분류 및 잠재계층 회귀분석에서 집단번호가 바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Asparouhov & Muthén, 2014) 3단계 접근법(Vermunt, 2010)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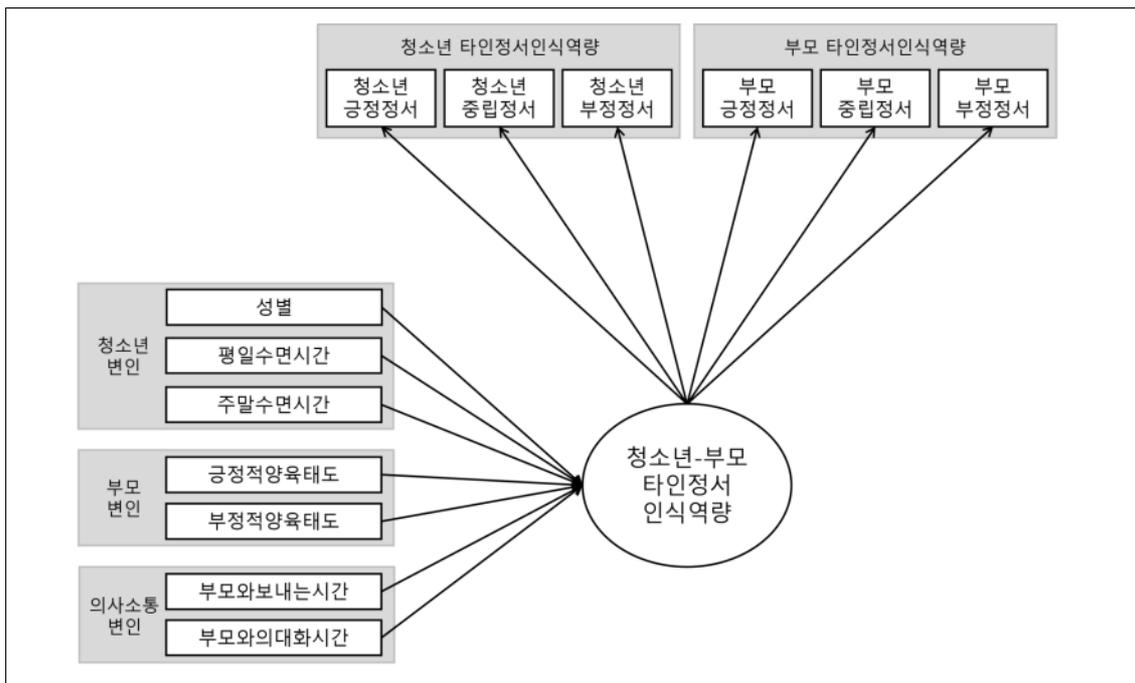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V. 결 과

1. 기술통계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는 표 3과 같다.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정상성 판단 기준으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변수는 없었고, 감정가(긍정, 중립, 부정)에 따른 타인정서인식역량의 평균은 청소년이 각각 .50, .61, .55 이었으며, 부모는 각각 .58, .62, .56 이었다. 이처럼 모든 감정가에 대해 자녀와 부모의 정답률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	.47**	1											
3	.39**	.71**	1										
4	.48**	.53**	.48**	1									
5	.41**	.72**	.63**	.64**	1								
6	.33**	.62**	.62**	.52**	.71**	1							
7	-.01	-.02	-.03	.01	.02	.01	1						
8	-.04*	-.06**	-.07**	-.07**	-.07**	-.07**	.15**	1					
9	-.03	-.02	-.04	-.07**	-.06**	-.04*	-.05*	.30**	1				
10	.13**	.17**	.17**	.14**	.16**	.14**	-.00	.08**	-.06**	1			
11	-.13**	-.11**	-.13**	-.11**	-.11**	-.10**	.02	.03	.11**	-.38**	1		
12	.12**	.29**	.28**	.21**	.30**	.30**	-.03	.07**	-.04	.24**	-.13**	1	
13	-.02	-.04*	-.04	.01	-.03	-.04	-.09**	.06**	-.01	.23**	-.15**	.33**	1
평균	.50	.61	.55	.58	.62	.56	-	7.90	9.24	3.15	2.06	4.91	3.98
표준 편차	.21	.28	.22	.25	.29	.22	-	.95	1.24	.48	.51	3.12	1.27

주: 1) 1-3=청소년의 긍정정서, 중립정서, 부정정서, 4-6=부모의 긍정정서, 중립정서, 부정정서, 7=청소년성별, 8=평일수면 시간, 9=주말수면시간, 10=긍정적양육태도, 11=부정적양육태도, 12=부모와보내는시간, 13=부모와의대화시간
 2) 1-3은 청소년의 타인정서인식역량, 4-6은 부모의 타인정서인식역량, 7-13은 영향요인임.
 3) * $p < .05$, ** $p < .01$

2. 청소년-부모 타인정서인식역량의 프로파일

청소년과 부모의 타인정서인식역량에 따른 프로파일을 도출하기 위하여, 프로파일의 개수를 하나씩 늘려가며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표 4에 제시하였듯이, 정보지수는 프로파일의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그림 2처럼 4개 전후로 감소 폭이 크게 변화하였다. LMR LRT에 따르면 프로파일은 4개가 적합하며, BLRT는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엔트로피는 모든 집단에서 .80 이상이였다. 즉, 프로파일이 4개일 때 집단이 명확히 구분되고 해석이 가능하기에, 프로파일은 최종 4개로 결정하였다.

표 4
적합도 지수 및 프로파일별 비율

분류기준		잠재프로파일 개수				
		2개	3개	4개	5개	6개
정보지수	AIC	-7565.98	-7999.45	-8376.38	-8498.42	-8578.05
	BIC	-7440.07	-7833.48	-8170.35	-8252.33	-8291.89
우도비검정 p-value	LMR LRT	.00	.00	.00	.06	.52
	BLRT	.00	.00	.00	.00	.00
분류의 질	Entropy	.95	.89	.90	.90	.83
	집단1	33.01	26.41	27.20	25.75	12.05
분류율(%)	집단2	66.99	58.77	57.77	4.13	23.71
	집단3		14.81	10.37	9.28	3.13
	집단4			4.67	3.03	8.53
	집단5				57.82	4.32
	집단6					4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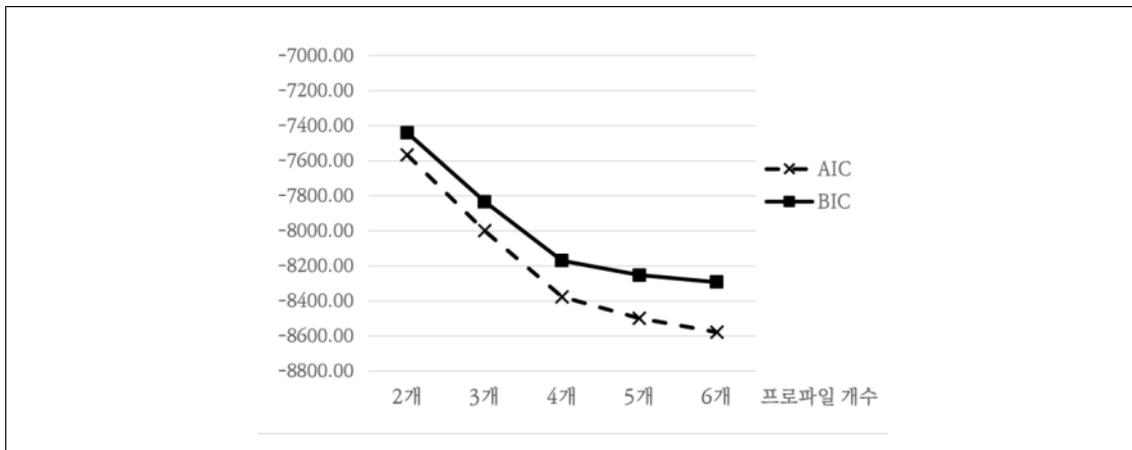


그림 2. 프로파일 개수 변화에 따른 정보지수의 변화

3. 프로파일의 특성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네 개 프로파일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집단별 특징을 그림 3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청소년과 부모 모두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정서인식서투름' 집단으로 명명하였고, 전체의 27.20%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청소년과 부모 모두 타인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기 때문에 '정서인식능숙'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은 전체의 57.77%로 대다수의 가정이 속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청소년의 타인정서인식역량이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높기에 '자녀인식민감' 집단으로 명명하였고, 10.37%를 차지하였다. 마지막 집단은 청소년의 타인정서인식역량이 부모보다 낮기에 '자녀인식둔감' 집단으로 명명하였고, 이 집단에 해당되는 가정은 4.67%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림 3에서 실선은 청소년을 나타내고 점선은 부모를 나타내는데, 정서인식서투름 집단은 청소년과 부모의 감정가에 따른 정답률이 서로 유사하게 낮았다. 또한, 이 집단은 네 집단들 중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인식능숙 집단은 청소년과 부모가 서로 유사한 정답률을 보였고 네 집단들 중 가장 만점에 가까운 정답률을 보였다. 자녀인식민감 집단은 청소년의 정답률이 부모의 정답률보다 약간 높았다. 자녀인식둔감 집단은 청소년의 정답률이 부모의 정답률보다 낮았는데, 정답률 차이가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졌다. 정서인식능숙집단의 청소년은 세 가지 정서가(valance) 중 특히 부정적 정서를 잘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정서인식서투름집단의 청소년은 세 가지 정서가(valance) 중에서 긍정적 정서를 잘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4. 프로파일 분류를 예측하는 변인 검증 결과

청소년변인, 부모변인, 의사소통변인이 프로파일 분류를 예측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우선, 정서인식서투름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했을 때, 평일 수면시간이 늘어날수록 정서인식능숙 집단보다 정서인식서투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주말 수면시간이 늘어날수록 자녀인식둔감 집단보다 정서인식서투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긍정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정서인식서투름 집단보다 정서인식능숙 집단, 자녀인식민감 집단, 자녀인식둔감 집단에 속하는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정서인식능숙 집단보다 정서인식서투름 집단에 속할 수 있었다. 아울러,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정서인식서투름 집단보다 정서인식능숙 집단, 자녀인식민감 집단, 자녀인식둔감 집단에 속할 수 있고,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정서인식능숙 집단, 자녀인식민감 집단, 자녀

인식둔감 집단보다 정서인식서투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정서인식능숙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하면,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정서인식능숙 집단보다 자녀인식민감 집단 및 자녀인식둔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주말 수면시간이 늘어날수록 자녀인식둔감 집단보다 정서인식능숙 집단에 속할 수 있었다. 자녀인식민감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하면, 남학생일수록 자녀인식민감 집단에 비해 자녀인식둔감 집단에 속할 수 있었다. 아울러, 주말 수면시간이 늘어날수록 자녀인식둔감 집단에 비해 자녀인식민감 집단에 속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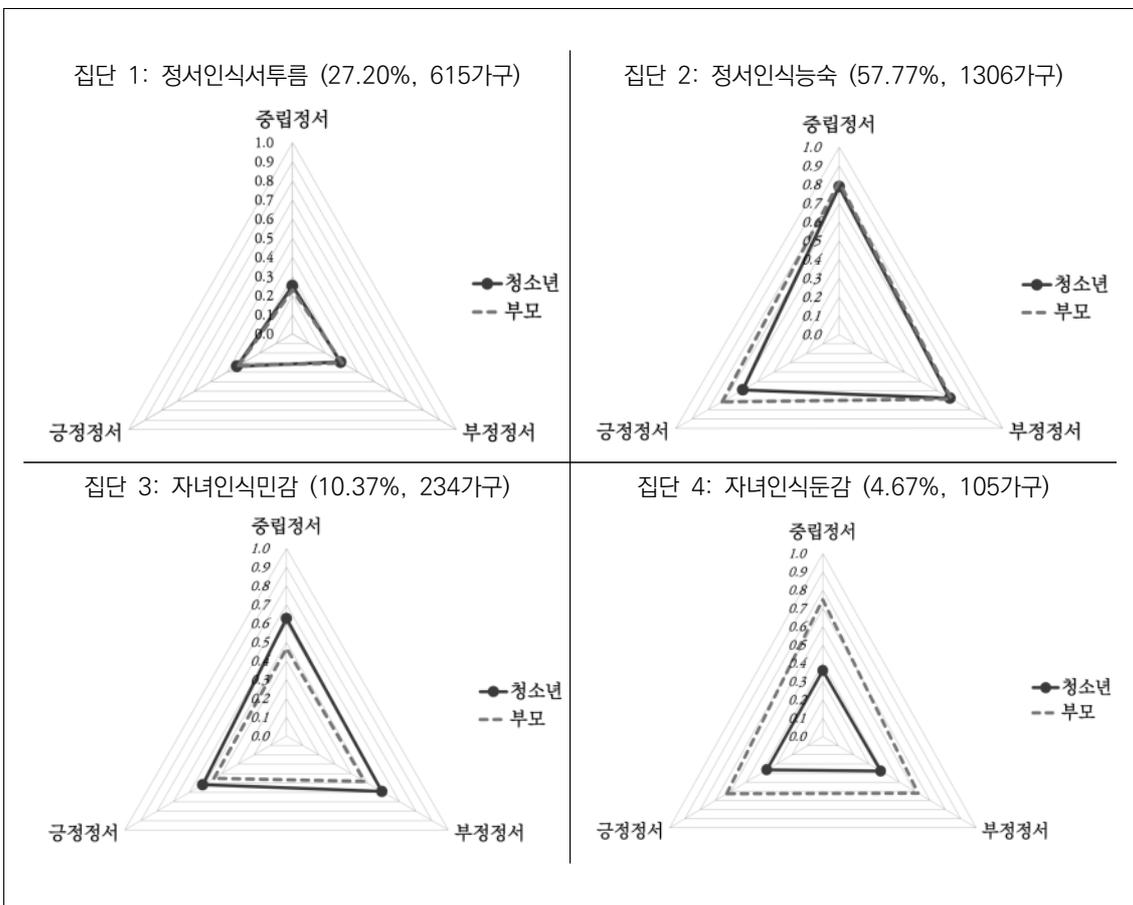


그림 3. 프로파일별 특징

표 5
예측변인 검증 결과

참조집단	비교집단	예측변인	로짓	표준오차	승산비
정서인식서투름	정서인식능숙	청소년성별	-.02	.12	.98
		평일 수면시간	-.36***	.07	.70
		주말 수면시간	-.00	.05	1.00
		긍정적 양육태도	.77***	.14	2.16
		부정적 양육태도	-.43**	.13	.65
		부모와 보내는 시간	.43***	.03	1.54
		부모와의 대화시간	-.56***	.06	.57
	자녀인식민감	청소년성별	-.28	.21	.75
		평일 수면시간	-.16	.13	.85
		주말 수면시간	.03	.08	1.03
		긍정적 양육태도	1.22***	.27	3.37
		부정적 양육태도	-.01	.20	.99
		부모와 보내는 시간	.36***	.05	1.43
		부모와의 대화시간	-.53***	.10	.59
자녀인식둔감	청소년성별	.36	.28	1.44	
	평일 수면시간	-.20	.14	.82	
	주말 수면시간	-.23*	.10	.79	
	긍정적 양육태도	.81*	.39	2.24	
	부정적 양육태도	.39	.28	1.48	
	부모와 보내는 시간	.35***	.06	1.42	
	부모와의 대화시간	-.32*	.13	.73	
정서인식능숙	자녀인식민감	청소년성별	-.27	.19	.77
		평일 수면시간	.20	.12	1.22
		주말 수면시간	.04	.07	1.04
		긍정적 양육태도	.45	.25	1.56
		부정적 양육태도	.42*	.17	1.52
		부모와 보내는 시간	-.07	.04	.93
		부모와의 대화시간	.03	.09	1.03
	자녀인식둔감	청소년성별	.38	.27	1.47
		평일 수면시간	.16	.13	1.18
		주말 수면시간	-.23*	.09	.80
		긍정적 양육태도	.04	.38	1.04
		부정적 양육태도	.83**	.26	2.28
		부모와 보내는 시간	-.08	.05	.92
		부모와의 대화시간	.24	.12	1.27
자녀인식민감	자녀인식둔감	청소년성별	.65*	.32	1.91
		평일 수면시간	-.04	.17	.96
		주말 수면시간	-.26*	.11	.77
		긍정적 양육태도	-.41	.46	.66
		부정적 양육태도	.40	.30	1.50
		부모와 보내는 시간	-.01	.07	.99
		부모와의 대화시간	.21	.15	1.23

주: * $p < .05$, ** $p < .01$, *** $p < .001$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부모의 타인정서인식역량에 따른 하위 집단을 분류하고, 그러한 프로파일 분류를 예측하는 요인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타인정서인식역량에 따른 하위 집단은 4개로 분류되었다. 각각 '정서인식서투름' 집단, '정서인식능숙' 집단, '자녀인식민감' 집단, '자녀인식둔감' 집단이다. 이때 대다수의 가정에서(85%) 부모의 타인정서인식역량이 높으면 자녀도 높고, 부모가 낮으면 자녀도 낮은 양상을 보였다. 이는 김형석과 김재철(2022), 허영주(2023), Castro et al.(2015)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자녀와 부모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가정도 존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자녀의 타인정서인식역량이 부모의 타인정서인식역량과 유사하게 발달하지만, 개인의 특성과 가정환경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른 유형의 집단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타인정서인식역량 관련하여 개입이 필요한 경우, 부모의 정서인식역량을 고려한 개입이 필요하다. 사회정서발달의 핵심적인 시기에 놓인 청소년이 정서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보호자와의 상담을 병행하여 적절한 개입 방향을 모색하되, 일부 가정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될 수 있다. 예컨대, 정서인식서투름 집단은 네 집단들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집단으로,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타인정서인식역량 함양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인식민감 집단은 청소년의 타인정서인식역량이 부모보다 높게 발달했기에 긍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즉각적인 사회적 지원은 불필요 할 수 있다. 자녀인식둔감 집단은 청소년의 타인정서인식역량이 부모보다 낮은데, 그 차이가 다른 집단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이 집단의 경우, 타인정서인식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때는 가족 보다는 개인 특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특히 청소년과 부모 중 한 사람이 상대의 정서를 더 둔감하거나 예민하게 인지한다면 상호작용할 때 불편감을 느낄 수 있어, 가족상담과 같은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프로파일 분류를 예측하는 요인들을 청소년변인, 부모변인, 그들 간 의사소통 변인으로 나누어 탐색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변인에서는 자녀의 성별이 남자이면 자녀인식민감 집단보다 자녀인식둔감 집단에 속할 수 있었다. 이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부모의 타인정서인식역량보다 향상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여학생은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는 데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Rose & Rudolph, 2006) 기존 연구들과 같이 성차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말 수면시간이 증가하면 자녀인식둔감 집단보다 다른 집단들에 속할 수 있었다. 즉, 주말에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면 청소년의 타인정서인식역량이 부모보다 낮아지지 않고, 부모를 닮거나 더 향상될 수 있다. 이는 수면이 얼굴 표정의

정서적 정보 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들을 지지한다. 하지만 평일 수면시간은 길어질수록 오히려 정서인식능숙 집단보다 정서인식서투름 집단에 속할 수 있었다. 김경호(2020)의 연구에서도 등교일의 수면시간이 길면 가정이나 학교에서 부적응을 겪을 수 있어, 평일과 주말 수면시간은 각기 다른 영향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명확한 메커니즘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타인정서인식역량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적 경험을 토대로 발달하는데(Masten et al., 2008) 평일 수면시간이 길면 가정과 학교에서의 활동이 적어 부적응을 겪고 정서적 경험이 다채롭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주말과 달리 평일은 학교 구성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한 기간이므로, 이때 과도한 수면을 취할 경우 자녀의 정서인식역량이 부모처럼 낮은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부모변인에서는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정서인식서투름 집단보다는 다른 집단들에 속하게 되었다.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정서인식능숙 집단보다는 다른 집단들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모는 자신의 사회정서역량을 발휘하여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기에(류성진, 2017), 정서인식에 능숙한 부모는 자녀의 정서에 따라 반응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수 있고, 자녀는 정서를 표현하거나 세분화 하는데 강화되어 정서인식 발달에 유리해 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성을 지지하는 등의 긍정적인 양육은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지만 학대나 비밀관적인 양육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

의사소통 변인에서는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정서인식서투름 집단보다 다른 집단들에 속할 수 있었고,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많으면 오히려 다른 집단들보다 정서인식서투름 집단에 속할 수 있었다. 악기 연주 등을 하며 부모와 보내는 시간과 집안일 같은 활동은 자녀가 가족을 관찰하고 공감 능력을 학습하도록 하여 정서발달에 효과적이다(Meroni et al., 2022). 이에 정서인식에 능숙한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그때마다 자녀는 부모를 관찰하고 모방하며 자신도 정서인식에 능숙해질 수 있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부모와 보내는 시간에 의해 자녀의 정서인식역량은 부모보다도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화시간이 증가할수록 자녀와 부모 모두 정서인식이 서투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대화시간이 많으면 타인정서인식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김형석과 김재철(2022)의 연구와는 상반되며 부모와의 대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 있을 수 있다는 강다운과 박정윤(2024)의 연구를 일부 지지한다. 대화하는 시간 자체보다는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에 대한 질적인 측면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가족간의 대화에서 자녀는 또래, 가족을 비롯한 대인관계 고민을 호소하지만 부모는 학업 및 진로에 초점을 맞추는데(소수연 외, 2014),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부모의 관심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부모와 자녀 모두 타인정서인식역량이 낮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개인 차원과 가정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타인정서인식역량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일 수면시간과 부모와의 대화시간에 의해 자녀의 타인정서인식역량은 부모의 낮은 역량을 닮아갈 수 있지만, 성별에 의해 부모와 다른 발달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었다. 한편, 주말 수면시간에 의해 자녀의 역량은 부모의 역량보다 낮아지지 않고, 부모를 닮거나 더 향상될 수 있었다. 그리고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모와 보내는 시간에 의해 자녀는 부모의 높은 역량을 닮거나 더 향상될 수 있는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에 의해 자녀는 부모의 낮은 역량을 닮거나 더 둔감해질 가능성이 있었다. 청소년이 적정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평일 수면시간과 주말 수면시간이 타인정서인식역량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한 명확한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후속연구로 수면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보통의 한국인에게 일상적인 경험이라 하기 어려운 인종의 사진으로 타인정서인식역량이 측정되었는데, 향후에 극동 아시아인의 특징이 두드러진 인물의 사진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할 수 있다면 문화적으로도 좀 더 적합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형제나 친구관계 같은 다양한 관계에서 정서발달을 살펴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다운, 박정윤 (2024). 중학생의 정서인식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28(2), 189-206. doi:10.21459/kccr.2024.28.2.189
- 김경호 (2020).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및 수면시간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검증: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의 적용. **학교사회복지**, 49, 45-81. doi:10.20993/jSSW.49.3
- 김은경, 이정숙 (2009). 학대받은 아동의 표정인식, 표정해석, 의도귀인에서의 반응편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2), 113-129.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doi:10.21509/KJYS.2017.03.24.3.313
- 김형석, 김재철 (2022). 부모 자녀 관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전이 유형과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29(2), 233-255. doi:10.21509/KJYS.2022.02.29.2.233
- 류성진(2017). 부모의 정서조절능력이 정서지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17(3), 37-71.
- 박홍석, 이정미 (2016). 정적정서 부적정서 척도 (PANAS)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4), 617-641. doi:10.22257/kjp.2016.12.35.4.617
- 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석윤주, 양재원 (2018). 초등학생의 얼굴표정 정서인식, 정서표현의 정확성과 또래관계. **사회과학연구**, 29(2), 45-59. doi:10.16881/jss.2018.04.29.2.45
- 소수연, 안지영, 양대희, 김경민 (2014). 초기 청소년기의 변화에 대한 부모-자녀의 인식에 관한 연구: 청소년·부모 FGI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2(1), 247-279. doi:10.35151/kyci.2014.22.1.011
- 양재원, 박나래, 정경미 (2011). 얼굴표정 정서 인식 능력과 고등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 및 또래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2), 475-495. doi:10.15842/kjcp.2011.30.2.007
- 여성가족부 (2024). **2024 청소년 통계**. 서울: 여성가족부.
- 유민상, 이경상, 유성렬, 이수정 (2023).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수미, 조정자, 김혜리 (2012). 얼굴표정을 통한 정서읽기 능력의 발달적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3), 55-72.

- 이승은, 남은영 (2011). 부모의 공감, 아동의 또래관계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 *한국심리치료학회지*, 3(1), 41-56.
- 전현정, 김나영, 이용해 (2022).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인성, 이지은, 신선옥, 정현상, 권익성 (2022). 한국노동패널 1-24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한현아, 도현심 (2008). 가정의 위험요인,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1), 87-101.
- 허영주 (2023). 청소년의 타인정서 인식역량이 학업성취 자아개념을 매개로 하여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타인정서 인식역량과 자녀 학업성취 평가의 영향을 기반으로. *핵심역량교육연구*, 8(2), 179-198. doi:10.52616/JCCER.2023.8.2.179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6), 716-723. doi:10.1109/TAC.1974.1100705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doi:10.1080/10705511.2014.915181
- Baron-Cohen, S., Wheelwright, S., Spong, A., Scahill, V., & Lawson, J. (2001). Are intuitive physics and intuitive psychology independent? A test with children with Asperger Syndrome.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learning disorders*, 5(1), 47-78.
- Boehner, K., DePaula, R., Dourish, P., & Sengers, P. (2007). How emotion is made and measured.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65(4), 275-291. doi:10.1016/j.ijhcs.2006.11.016
- Castro, V. L., Halberstadt, A. G., Lozada, F. T., & Craig, A. B. (2015). Parents' emotion-related beliefs, behaviors, and skills predict children's recognition of emotio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4(1), 1-22. doi:10.1002/icd.1868
- Collins, L. M. & S. T. Lanza. (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New York: Wiley.
- Gibb, B. E., Schofield, C. A., & Coles, M. E. (2009). Reported history of childhood abuse and young adults' information-processing biases for facial displays of emotion. *Child Maltreatment*, 14(2), 148-156. doi:10.1177/1077559508326358

- Gibson, E. J., & Walk, R. D. (1960). The "Visual Cliff." *Scientific American*, 202(4), 64-71.
- Killgore, W. D., Balkin, T. J., Yarnell, A. M., & Capaldi II, V. F. (2017). Sleep deprivation impairs recognition of specific emotions. *Neurobiology of sleep and circadian rhythms*, 3, 10-16. doi:10.1016/j.nbscr.2017.01.001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doi:10.1093/biomet/88.3.767
- Maccari, L., Martella, D., Marotta, A., Sebastiani, M., Banaj, N., Fuentes, L. J., & Casagrande, M. (2014). Effects of sleep loss on emotion recognition: a dissociation between face and word stimuli. *Experimental brain research*, 232, 3147-3157. doi:10.1007/s00221-014-3995-9
- Masten, C. L., Guyer, A. E., Hodgdon, H. B., McClure, E. B., Charney, D. S., Ernst, M., Kaufman, J., Pine, D. S., & Monk, C. S. (2008). Recognition of facial emotions among maltreated children with high rate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hild abuse & neglect*, 32(1), 139-153. doi:10.1016/j.chiabu.2007.09.006
- Meroni, E. C., Piazzalunga, D., & Pronzato, C. (2022). Allocation of time and child socio-emotional skills.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20(4), 1155-1192.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doi:10.1080/10705510701575396
- Palmer, S. J., Fanucci-Kiss, A., Kipervassar, E., Jalnapurkar, I., Hodge, S. M., Frazier, J. A., & Cochran, D. (2024). Effect of emotional valence on emotion recognition in adolesc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54(4), 1494-1506. doi:10.1007/s10803-022-05831-5
- Peel, D., & McLachlan, G. J. (2000). Robust mixture modeling using the t distribution. *Statistics and computing*, 10(4), 339-348. doi:10.1023/A:1008981510081
- Pollak, S. D. & Sinha, P. (2002). Effects of early experience on children's recognition of facial displays of emo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8(5), 784-791. doi:10.1037//0012-1649.38.5.784
- Rose, A. J., & Rudolph, K. D. (2006). A review of sex differences in peer relationship processes: Potential trade-offs for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development

- of girls and boys. *Psychological bulletin*, 132(1), 98-131. doi:10.1037/0033-2909.132.1.98
-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6(2), 461-464.
- Van Der Helm, E., Gujar, N., & Walker, M. P. (2010). Sleep deprivation impairs the accurate recognition of human emotions. *Sleep*, 33(3), 335-342. doi:10.1093/sleep/33.3.335
- Van Kleef, G. A., De Dreu, C. K., & Manstead, A. S. (2010). An interpersonal approach to emotion in social decision making: The emotions as social information model.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 45-96. doi:10.1016/S0065-2601(10)42002-X
- Vermunt, J. K. (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4), 450-469. doi:10.1093/pan/mpq025
- Watson, D., & Clark, L. A. (1994). *The PANAS-X: Manual for 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expanded form*.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Iowa.
- Young, J. C., & Widom, C. S. (2014). Long-term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on emotion processing in adulthood. *Child abuse & neglect*, 38(8), 1369-1381. doi:10.1016/j.chiabu.2014.03.008

ABSTRACT

Classifying latent profiles in emotion recognition ability of youth and parents: Verifying the effects of relevant factors

Kim, Hayeon* · Ryu, Hosung** · Kim, So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latent profiles of emotion recognition ability, and verify factors that predict the classification. To take into consideration any possible generational differences, the responses of both youth and parents were used. 2260 participants from the 4th wave of the KCYPS, were used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and analysis was conducted by latent profile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Emotion recognition abilities of youth and parents were classified into four subgroups: poor emotion recognition, competent emotion recognition, youth-sensitive, youth-insensitive. In most families, youth tended to develop emotion recognition ability similar to that of their parents, but there were also families where this was not the case. Gender, weekday and weekend sleep,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time spent with parents, and conversations with parents had an effect on classific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emotion recognition ability of youth was examined in consideration of family dynamics and the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is ability were also proposed.

Key Words: youth and parents, emotion recognition ability, valence, latent profile analysis

* First Author, Dep.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A-Ph.D. Integrated Student

** Second Author, Dep.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A Student

*** Corresponding Author, Dep.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